

세계가 찾는 '검은 반도체' 전남 김...국가산업으로 키우자

역대 최대 위판량에 수출도 2억7500만달러로 꾸준히 늘어 도, 효과 높은 무기산 대체 활성처리제 개발...상용화 눈앞 종자·양식·가공 등 비교 우위 경쟁력...국가산업화 '쟁걸음'

전남도가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김 산업은 생산량과 수출액 등 모든 부문에서 매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올해 물김 생산을 마친 결과 역대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와 신규 활성처리제 개발하는 등 김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육상양식 등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함께 김 산업의 국가전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역대 최대 위판량·수출 꾸준히 성장세=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끝난 물김 생산 결과, 전남지역 총생산량은 54만t으로 생산액 8408억원(물김 16만 7000t)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3만 9000t, 완도 8만 6000t 순이었다.

생산액은 진도 2490억원, 고흥 2312억원, 완도 1286억원 순이었다. 전남은 물김 전국 생산량의 78%, 생산액 81%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의 대표 지역이다.

올해는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늘었다. 다만 생산액은 5% 증가에 그쳤다. 안정적인 해황이 유지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출하량이 한 번에 몰리면서 위판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생산량 증가 뿐 아니라 수출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4월까지 전남도 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2억 7500만 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도 외면한 김 활성처리제 신규 개발=전남도는 최근 무기산을 대체할 수 있는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했다. 김 양식장에서는 높은 방제효과와 경제성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범법자가 되는 어민들이 생겨났는데 새로운 활성처리제 개발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어장에서 파래를 비롯한 잡대나 갯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남도는 3년 전 수협중앙회, 고흥-해남-진도-신안수협과 협력해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맡겨 신규 활성처리제 개발에 착수했다.

신규 활성처리제는 파래제거 효과가 무기산과 동일하고 기존 활성처리제보다 3배 높은 제거 효과를 낸다. 요각류 제거 효과는 무기산보다 1.4배 높고, 카드뮴 제거 효과도 무기산과 동일하다. 신규 활성처리제는 농도도 낮아(PH 0.7)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특히 경제성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연간 사용량으로 보면 무기산보다 2배 이상 적고, 기존 활성처리제 대비는 10배 가까이 적다. 김 양식 어가에서는 양식장이 위치한 먼 바다까지 많은 양의 활성처리제를 가지고 나가야해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컸지만, 신규 활성처리제는 적은 양만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전남도는 국내와 일본에 특허 출원을 마무리하고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 특히 신규 활성처리제는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제품 개발을 외면할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만연했지만, 전남도는 직접 예산을 세워 결국 새로운 활성처리제는 개발했다.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수정해 신규 활성처리제 사용을 가능토 할 방침이다.

◇검은 반도체의 국가산업화=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고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남은 종자·양식·가공



고흥 도화면 김 양식장.

수출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김 산업을 국가산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국립 김 산업진흥원 건립·운영 ▲K-GIM국제 수출단지 조성 ▲국제 마른김 거대플랫폼 구축 ▲김산업진흥구역 확대 운영 ▲마른김 수산업협동조합 설립 ▲해의 소비자 공동물류센터 등을 포함한다. 전남

도는 세계 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김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김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및 마른김 업체의 조직화·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올해 양식시설물 신속 철거 지도·감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산불에 강한 숲 조성한다

현장 소통 간담회서 예방 숲가꾸기 10724ha 현황 점검

전남도는 3일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해 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현장에서 소통간담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 내 연료를 줄이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가꾸기 사업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솎아베기를 실시해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22개 시·군 숲가꾸기 담당자들과 함께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

고, 향후 발전 및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단가의 현실화, 드론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올해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1724ha 규모의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내실화를 위해 현장토론회, 실무교육, 사전 설계 심의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해 산불로부터 전남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숲을 가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100여종 바다생물 만나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재개관

건물 보강 공사·리모델링 완료

100여종의 바다생물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다시 관람객을 맞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해양수산과학관은 지난 31일 건물 보강 공사와 본관동 전시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에 들어갔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지난 1987년 개관한 뒤 매년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능생어와 돌류 등 남해안 토산어종과 미국 하와이·홍콩 등에 서식하는 열대어까지 바다생물 100종, 5000여 마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 멸종위기 바다거북과 아기 가오리 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를 열거나 지역 어업문화를 소개하는 해양 학습장 역할도 하고 있다.

물고기 먹이주기, 닥터피쉬 체험, 해양생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관람객 체험형 콘텐츠도 갖추고 있다.

과학관측은 재개관하면서 '두족류·패류 특별전시관'을 새롭게 단장, 갑오징어, 문어, 참소라(피물고등), 키조개, 홍합(진주담치)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해양수산생물에 대한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산 생과 '백운복분자주'

전남도 '이달의 전통주' 선정

(주)백운주가, 지역 농산물 활용 별해주1941·매실막걸리 등 생산

전남도가 6월 이달의 전통주로 '백운복분자주'의 백운복분자주(사진)를 선정했다.

백운복분자주는 6월 제철을 맞은 광양 복분자 생과로 빚은 술이다. 특유의 저온발효와 장기 휴면발효 공법을 사용해 복분자 본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은은한 향과 진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2014년 벨기에 주류품평회·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 2016년 대한민국의술 품평회 등 국내외 수많은 품평회에서 입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고, 특히 국내 대형마트와 동남아 지역 등 해외까지 진출했다.

또 전남도가 우수 술을 발굴, 시상하는 남도우리의 품평회에서 매년 꾸준히 입상하며 남도 최고의 전통주로 자리잡고 있다.

백운주가는 백운복분자주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광양 매실 등 지역 농산



물을 활용해 별해주1941, 매실막걸리, 백운복분자외인, 대나무술 등 13종의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다.

최창석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마케팅을 통해 일본 사케, 프랑스 와인처럼 한국 전통주(K-wine)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백운복분자주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접수...매월 6만원씩 지급

전남도가 6월부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접수를 시작한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6만원씩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